

# 史書의 《春秋》 계승 의식과 문학성의 상관성\*

- 《史記》와 《漢書》를 중심으로 -

安芮璿\*\*

---

## ◁ 목 차 ▷

- I. 시작하며
  - II. 史書에서 문학성의 문제
  - III. 《史記》와 《漢書》의 상이한 《춘추》 계승
    - 1) 司馬遷의 《春秋》관-자유로운 是非褒貶의 근거
    - 2) 班固의 《春秋》관-尊王과 大一統을 위한 이념적 근거
  - IV. 班·馬의 《春秋》관과 문학성의 상관관계
  - V. 나오면서
- 

## I. 시작하며

史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이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만 열거되어 있는 사서는 독자에게 지식과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흥미와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은 문학성에서 비롯된다. 문학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史書에서의 문학성이란 사관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서술태도에서 벗어난다고 보일 수 있는 주관적인 상상이나 예술적 가공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생한 역사의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사관은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그 현장에서 받아 적었다고 할 수 있으리만치 실감나는 대화와 독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허구적 고사와 인물까지 삽입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서는 풍성하고 그럴듯하게 포장된다.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380)

\*\* 고려대학교 중문과 강사

이러한 문학성의 정점에 《史記》가 있다. 《史記》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鴻門宴을 보자. 이 장면에서 인물들의 표정과 구체적인 동작, 긴박한 대화와 심리 묘사가 사실 그대로라고 보기는 힘들다. 鴻門宴이라는 사건을 바탕으로 사마천이 적절한 개연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생하고 씩진하게 표현해 낸 것이다. 특히 《史記》는 어떤 사서보다 직접 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史官이 항상 옆에 붙어있지 않는 한 말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錢鍾書는 사서에서 말의 기록(記言)은 대반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과감히 말한다. 이를 ‘代言’이라고 하는데, 史家가 등장 인물을 대신(代)해서 말(言)한다는 의미이다.<sup>1)</sup> 史家가 인물과 사실을 기록할 때 당사자의 내면과 사건의 상황으로 들어가 그 심리와 정황을 헤아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代言이다. 즉, 史家의 상상이고 허구라는 얘기다. 《史記》에는 인물들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마천의 상상에서 비롯된 허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허구적 요소 때문에 우리는 《史記》를 가장 뛰어난 사서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史記》 이후 후대로 갈수록 사서에서 문학성은 점차 감소해간다. 後漢 班固의 《漢書》가 《史記》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반면, 문학성은 감소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이후 사서에서 문학성에 대한 배제는 명확한 추세이다. 본고는 이러한 사서의 흐름을 ‘春秋’ 계승 의식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春秋》는 공자가 편찬했다는 믿음 때문에 후세 사서 편찬자들에게 절대적인 추송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春秋》 자체가 간략함과 난해함의 극치인데다가, 經文 어디에서도 역사 편찬의 의도나 원칙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春秋》의 실제

1) 錢鍾書, 《管錘篇》: “古史記言, 大半出於想當然.” 전중서는 〈항우본기〉 중 홍문연의 장면에서 펼쳐지는 인물 사이의 긴박한 대화와 구체적인 동작의 묘사는 사료를 근거로 했다가 보다는 사마천이 그들의 입장에 서서 대신 말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管錘篇》 “馬遷設身處地, 代作喉舌而已.”) 이러한 것을 전중서는 ‘代言’이라고 정리한다. 즉, 사가가 등장 인물을 대신(代)해서 말(言)하는 것이다. 역사 인물의 독백이나 대화를 똑같이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사가가 인물과 사실을 기록할 때 당사자의 내면과 사건의 상황으로 들어가 그 심리와 정황을 헤아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代言이다. (史家追敘真人實事, 每須遙體人情, 懸想事勢, 設身局中, 潛心腔內, 忖之度之, 以揣以摩, 庶幾入情合理.) 《管錘篇》(中華書局, 1994) 제 1책, 166쪽.

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사서는 《춘추》의 명분, 의리, 왕도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후대로 갈수록 이념화되어 가면서 역사 기술은 점차 객관화 되고 경직되어 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작자의 문학성이 개입할 여지는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는 가설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사서에서 문학성의 감소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본고에서는 《사기》와 《한서》의 《춘추》 계승 의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사마천도, 반고도 《춘추》를 계승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춘추》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서로 달랐다. 그리고 《춘추》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태도가 문학성의 다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사기》와 《한서》의 구체적인 내용의 문학성에 대한 분석은 이미 너무나 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 본고는 두 사서의 문학성의 다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나열과 비교는 지양하고 이론적 측면에 주력하고자 한다. 즉, 사마천과 반고의 가치관, 학문관, 춘추에 대한 인식, 왕실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문학성의 다소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 II. 史書에서 문학성의 문제

사실 춘추전국시기 史官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直筆’의 책임감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말솜씨와 문학적 재능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공자는 “꾸밈이 질박함을 이기면 ‘史’라 한다(文勝質則史)”고 했다.<sup>2)</sup> 이를 清代 劉寶楠은 “역사는 꾸밈이 많고 질박함은 적다(史者, 文多而質少)”라고 해석하였다.<sup>3)</sup> 韓非子 또한 “구변이 뛰어나고 문체가 화려하면 사관으로 여겨진다(捷敏辯給, 繁於文采, 則見已爲史)”고 했다.<sup>4)</sup> 先秦과 漢代 사람들에게 역사를 쓴다는 것은 ‘실제보다 꾸밈이 많은[文勝質]’ 것이었다.<sup>5)</sup> 사마천은 이러한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시기의 사관이었고, 사실을 그럴듯하게 재현

2) 《論語·雍也》

3) 《論語正義》

4) 《韓非子·難言》

5) 韓兆琦, 《史記通論》(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47쪽.

하기 위해 문학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인물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이러한 꺾진한 묘사가 사실 그대로라고 볼 수는 없다. 《史記》 중 인물의 독백이나 대화, 사건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등장하는 무명의 소인물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이 사마천의 가공이라는 점은 이미 前人들이 지적한 바 있다. 사마천은 기왕의 사실에 대해 누구나 절로 수궁할 수 있는 이면을 열어 보이는 기법으로 문학적성을 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項羽本紀〉 중 항우의 垓下歌를 생각해보자. 항우가 형세가 이미 기운 것을 비통해하며 시를 읊는 이 장면은 《史記》 중 가장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清代 周亮工은 당시 항우의 형세가 시를 짓거나 할 상황도 아니었고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듣고 기록했겠는가 라며 분명 사마천이 항우의 입장이 되어 그럴듯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했다.<sup>6)</sup>

〈李斯列傳〉에서 胡亥의 제위 계승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극진한 설명 또한 이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조고가 이사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심리변화와 말투, 상황과 표정에 대한 묘사는 실감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밀담과 음모를 사마천이 이렇게 자세히 알았을 리 없다. 이에 대해 明代 鄧以讚은 이렇게 평했다. “조고와 이사가 밀모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기·이사열전》을 읽으면 어찌 이리 상세하고 문장 또한 세련되었는가. 옛날 사관이라는 자리를 알 수 있겠다.”<sup>7)</sup> ‘옛날 사관이라는 자리를 알 수 있겠다(可見古時史職)’는 말은 고대에는 역사를 쓰는 행위가 적절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능력, 즉 문학적 재능을 필요로 했음을 언급한 것이다.

역사의 장면에 대한 전지적 시점의 상세한 묘사는 읽을 때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6) “해하가 어떤 때였는가? 우회는 죽고 자제들은 흩어지고 말인 추도 도망가고 대택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느 겨를에 시를 지을 수 있었겠는가? 지었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들었을 것이며, 누가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이 말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분명 태사공이 항우의 입장이 되어 대신 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垓下是何等時? 虞姬死而子弟散, 匹馬逃亡, 身迷大澤, 亦何暇更作歌詩? 卽有作, 亦誰聞之, 而誰記之歟? 吾謂此數語者, 無論事之有無, 應是太史公, 筆補造化, 代爲傳神.)” 《管錐篇》(中華書局, 1994) 제1책, 278쪽.

7) 韓兆琦, 《韓兆琦史記新讀》(北京燕山出版社, 2007): “高、斯密謀, 宜不令人知之, 乃敘之詳悉如此, 且文詞甚工麗, 可見古時史職.”

《사기·쑤世家》에서 趙盾의 간언이 성가셨던 진영공은 자객을 보내 조돈을 죽이려 한다. 자객은 새벽에 조돈의 집에 잠입했는데, 조돈은 이미 의복을 갖춰 입고 조정에 나갈 준비를 마친 채 자는 듯 앉아 있었다. 자객은 조돈의 절제 있는 태도에 감탄하며 “충신을 죽이는 것과 주군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 죄는 같다”고 말하고는 스스로 나무에 부딪쳐서 죽었다.<sup>8)</sup> 주군의 명을 따를 수도, 배신할 수도 없는 자객이 결국 비장하게 죽으면서 내뱉는 말은 결코 사실일 리가 없다. 자객은 바로 죽었고, 그 순간 누가 그의 말을 기록했겠는가?

특정 부분이 사실을 근거로 그럴듯하게 가공한 것이라면, 심지어는 완전한 허구라고 의심받는 부분도 있다. 《趙世家》 중 趙氏孤兒 부분은 이후 소설과 희곡의 소재가 될 정도로 비장하고 극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이 부분의 진실성에 대해 청대 趙翼은 “屠岸賈의 일은 황당무계하고 사마천의 채록은 황당하며 믿을 수 없다. 사기 중 세가의 내용은 대부분 《좌전》과 《국어》에서 취하였는데 오직 이 사건만은 두 책의 기록을 쓰지 않고 따로 異說을 취하여 서로 어긋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실로 기이함을 좋아하는 잘못<sup>9)</sup>”이라고 했고, 梁玉繩도 “이 일은 실로 황탄하여 믿을 수가 없다. 屠岸賈와 程嬰, 公孫杵臼와 같은 인물은 아마 없었을 것<sup>10)</sup>”이라고 단언한다.

韓兆琦는 《魏其武安侯列傳》에서 田蚡이 竇嬰과 灌夫의 원혼에게 시달리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거론하며 “이런 내용이 과연 역사인가?”라고까지 한다.<sup>11)</sup> 물론 이는 《사기》를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다. 그만큼 사마천이 효과적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적지 않은 창작을 가미했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표현이다. 《사기》 중에서 이처럼 진위성을 의심받는 내용

8) 《사기》의 이 대목은 《좌전》의 기록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사마천의 창작은 아니다. 《사기》 중 춘추 시대의 내용은 상당부분 《좌전》의 기술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좌전》의 풍부한 문학성이 그대로 전수되었다. 사마천이 의식적으로 《좌전》의 기술을 채택하였다면, 이 또한 역사 기술에 대한 사마천의 원칙과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9) 趙翼, 《陔餘叢考》卷五〈趙氏孤之妄〉: 益可見屠岸賈之事出於無稽, 而遷之採摭荒誕不足憑也. 《史記》諸世家多取《左傳》、《國語》以爲文, 獨此一事全不用二書而獨取異說, 而不自知其抵牾, 信乎好奇之過也! (河北人民出版社, 2003), 90쪽.

10) 梁玉繩, 《史記志疑》 권23〈趙世家〉(中華書局, 2006) 1051쪽: 斯事固妄誕不可信. 而所謂屠岸賈、程嬰、杵臼, 恐亦無其人也.

11) 韓兆琦 저, 이인호 역, 《사기교양강의》(돌베개, 2009), 329쪽.

이 적지 않다. 따라서 사기의 일부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로 읽어야지 진실한 역사로 읽을 수 없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 장치 덕분에 독자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 속 인물과 함께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게 된다. 명대 茅坤의 평은 이 점을 잘 짚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유희열전을 읽으면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자 하게 되고, 굴원·가의 열전을 읽을 때는 울고 싶어하며, 장주와 노중련의 열전을 읽을 때는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고 싶어한다. 이광 열전을 읽을 때는 용기를 갖고 싸워보고 싶어하며, 석건 열전을 읽으면서는 겸허해지기를 원한다. 한신과 평원군 열전을 읽을 때는 선비를 양성하고 싶어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마천이 대상의 본질과 인물들의 마음을 잘 포착했기 때문이다.(今人讀〈游俠傳〉, 卽欲輕生; 讀〈屈原賈誼傳〉, 卽欲流涕; 讀〈莊周〉、〈魯仲連傳〉, 卽欲遺世; 讀〈李廣傳〉, 卽欲力鬪; 讀〈石建傳〉, 卽欲俯躬; 讀〈信陵〉、〈平原君傳〉, 卽欲養士. 若此者何哉? 盖各得其物之情, 而肆於心故也.)<sup>12)</sup>

“대상의 본질과 인물의 마음을 잘 포착했다”는 것은 사마천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 상황과 심리에 대한 완벽한 재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서》가 《사기》보다 상대적으로 문학적성이 덜하다는 점은 학계의 공통된 평가이다. 수많은 문학사와 산문사에서 《한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문학적 평가에 대해서는 《사기》보다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sup>13)</sup> 《한서》는 절반 가량이 《사기》와 중복되며, 이 부분은 거의 《사기》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민감한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한 부분에서 구문의 표현을 바꾸거나 삭제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맥락에서는 《사기》와 유사한 전개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기》와 중복되는 부분으로 《한서》의 문학적성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서》가 독자적으로 기술한 부분의 인물과 사건은 《사기》에 비해 생동적인 장면묘사나 대화체가 확실히 적다. 前漢의 주요 인물인 霍光, 匡衡, 劉向, 趙充國, 辛慶忌, 陳湯 등의 열전을 《사기》 중 蕭何, 賈誼, 晁錯, 衛青, 霍去病, 李廣 등의 열전과 비교해 본다면 문학적 표현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sup>14)</sup>

12) 茅坤, 《歷代名家評史記》 202-203쪽 재인용.

13) 역대 문학사와 산문사에서 《한서》의 문학적성에 대한 평가는 潘定武, 《漢書文學論稿》(安徽大學出版社, 2008), 9-18쪽 참조.

대신 《한서》는 황제의 조서, 칙서와 신하의 주의문 등 원문 자료의 인용에 많은 편 폭을 할애하고, 일화나 직접 화법보다는 객관적이고 개괄적인 서술체를 위주로 하였다. 주관과 감정은 배제되고 냉정하게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 서술이다. 《한서》가 “비난과 칭찬은 합당하게,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不激詭, 不抑抗〕”<sup>15)</sup> 태도를 유지했던 것은 사마천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 기술에 대한 반고의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관이 갖춰야 했던 문학적 가공 능력은 왜 절제되고 배제되었던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고는 두 사서가 모범으로 삼았던 중국 최초의 편년체 사서, 《춘추》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Ⅲ. 《史記》와 《漢書》의 상이한 《춘추》 계승

《춘추》는 노나라의 연대기로, 노 은공 원년(기원전 722)부터 애공 14년(기원전 481)까지의 기록이다. 지극히 간결한 서술과 용어 사용의 엄정함 때문에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이 편년체 사서가 그토록 중시되는 까닭은 공자가 찬술했다는 믿음 때문이다. 공자가 《春秋》를 저술했다는 설은 《맹자》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3세상이 타락해 道義가 사라지자, 邪說과 悖惡한 행동이 행해졌다. 즉 신하가 임금,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孔子가 이를 두려워하여 《春秋》를 지었다.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따라서 공자는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춘추뿐이고 나를 죄줄 것도 오직 춘추일 것이다’…… 孔子가 《春秋》를 완성하자 亂臣賊子가 두려워하였다.(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其惟《春秋》乎! 罪我者其惟《春秋》乎!”……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sup>16)</sup>

질서와 예의가 붕괴되는 난세에 맞서 자신의 정의를 펼치고 천자의 법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춘추》를 지었다는 점에서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이 동기가 되었

14) 韓兆琦 著, 《史記通論》, 296쪽.

15) 范曄, 《後漢書·班固傳》

16) 《孟子·滕文公下》(楊伯峻 譯注, 《孟子譯注》, 中華書局, 1995.) 155쪽.

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후세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춘추》에 의해서일 것이라는 말에는 역사 편찬이라는 천자의 일을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자신이 그런 참람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했던 대의를 알아줄 것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그러나 《춘추》는 언어적인 모호함과 상징성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좌전》, 《공양전》, 《곡량전》의 해석서가 등장하게 된다. 《좌전》은 《춘추》를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해석하며, 《공양전》은 공자의 미언대의를 도리와 원칙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나아가 이를 현실정치에 접목시켜 유가적 왕도를 구현하고자 한다.

### 1) 司馬遷의 《春秋》관-자유로운 是非褒貶의 근거

사마천의 〈태사공자서〉는 《춘추》에 대한 지극한 중시와 찬양조로 일관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자신의 《사기》가 공자의 《춘추》를 계승한 것임을, 그리고 공자가 했던 일을 자신도 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상대부 壺遂가 물었다. “옛날 공자는 무슨 까닭에 《춘추》를 지었습니까?” 태사공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董生에게 들었다. “주나라의 왕도가 쇠퇴하자 공자는 노나라의 사구가 되었다. 그러자 제후들은 공자를 시기하고, 대부들은 공자를 방해하고 나섰다. 이에 공자는 자기의 좋은 말은 채택되지 않고, 선왕의 도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242년간의 노나라 역사의 시비를 따져서 이로써 천하의 한 본보기로 삼았는데, 천자라도 깎아내리고, 불의한 제후는 비난하고, 불충한 대부는 공격함으로써 왕도를 밝히려고 하였을 뿐이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추상적인 말로 기재하려고 해보았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위정자가 행한 실재 치적을 놓고 포폄을 진행하는 것이 일을 훨씬 더 절실하고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上大夫壺遂曰：“昔孔子何爲而作春秋哉？”太史公曰：“余聞董生曰：‘周道衰廢，孔子爲司寇，諸侯害之，大夫壅之。孔子知言之不用，道之不行也，是非二百四十二年之中，以爲天下儀表，貶天子，退諸侯，討大夫，以達王事而已矣。’子曰：‘我欲載之空言，不如見之於行事之深切著明也。’”<sup>17)</sup>

지금 우리는 《춘추》를 노나라의 역사서로만 보지만, 사마천이 보기에 공자는 당

17) 《史記·太史公自序》



시 ‘자신의 말이 쓰이지 않고 도가 실현되지 않자(言之不用, 道之不行)’ 그 대안으로 《춘추》를 지은 것이다. 물론 이는 앞에서 본 《맹자》의 말과 상통한다. 즉, 난세에 자신의 이상이 지도자들에게 수용되지 않자 과거 역사에 대한 시비포편을 행하는 것으로 도리와 명분을 밝히고 이를 통해 왕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춘추》는 역사서라기보다는 공자의 치국의 방략과 학설이 담긴 사상서가 된다. 단지 역사 기록의 틀을 빌리고 있을 뿐이다. 공자가 역사를 빌려 자신의 이상을 표현했듯, 사마천도 역사 저술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기탁한 것이다.

사마천은 공자가 《춘추》에서 ‘천자라도 깎아내리고, 불의한 제후는 비난하고, 불충한 대부는 공격함으로써 왕도를 밝히려(貶天子, 退諸侯, 討大夫, 以達王事而已矣)’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천자라도 깎아내리고(貶天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편찬자라는 표현 자체가 불경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서·사마천전》은 〈태사공자서〉를 거의 그대로 실으면서 ‘天子退’라는 말을 삭제하고 ‘貶諸侯, 討大夫’로 되어있을 정도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를 인용함으로써 천자까지도 편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주관적 평가의 근거를 마련한다.

그런데 사마천은 이 말은 ‘董生’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董生은 ‘獨尊儒術’을 제창한 董仲舒로, 이를 근거로 사마천과 《사기》가 공양학을 학술과 사상의 근본으로 삼았다고 보기도 한다. 공자가 ‘난세를 바로잡아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려[撥亂世, 反諸正]’ 왕도를 실현하고자 《춘추》를 지었다고 보는 것은 공양학의 기본 취지이자 사마천도 동의하는 바이다.<sup>18)</sup> 그러나 이를 근거로 사마천을 공양학파로 보거나 동중서를 존경해서 그의 견해를 〈태사공자서〉에 수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기》는 동중서를 독립해서 입전하지 않았고, 〈유림열전〉에서 다른 유생과 함께 언급하고 있을 뿐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심지어 劉師培는 사마천이 동중서를 경시했으며, 〈태사공자서〉에서 동중서의 학설을 인용했다는 자체를 의심하면서 사마천이 말한 《춘추》는 공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sup>19)</sup> 사마천이 은연중에 동중

18) 《公羊傳》哀公14年: 공자는 무엇 때문에 춘추를 지었는가? 난세를 다스리고 사회를 바로잡는데 춘추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이다. (孔子曷爲爲春秋, 撥亂世, 反諸正, 莫近諸春秋.)

19) 〈유림전〉에서 “한나라 개국부터 五世까지 동중서만이 《춘추》에 밝았다고들 말하는데 그는 공양씨를 전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마천이 다만 공양을 《춘추》의 별파로 여

서를 비하하는 의도를 담았다거나 실제 동중서의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의 진위 여부는 보류하더라도, 사마천과 동중서가 사승 혹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공자가 난세를 바로잡기 위해 《춘추》를 저술한 것이라는 공양학의 해석에는 기본적으로 동조했으며, 당시 동중서의 공양학이 점차 세력과 권위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해가는 추세였으므로 ‘동생’을 언급하여 자신의 논리에 힘을 실은 것이 아닐까 한다.<sup>20)</sup>

《춘추》에서 이루어진 시비포폄은 공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맹자는 “공자가 말하길, 춘추의 뜻은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선택한 것(孔子曰: 其義則丘竊取之矣)”<sup>21)</sup>이라고 했다. ‘竊取’는 《춘추》의 의리가 공자 자신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유사한 맥락이 《사기·공자세가》에도 보인다.

공자는 지난날 소송안건을 심리하였을 때에 문사상 다른 사람과 의논해야 할 때 는 결코 자기 혼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춘추》를 지을 때에는 결단코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였기 때문에 자하와 같은 제자들도 한

긴 것이지 《춘추》가 곧 공양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중서만이 《춘추》에 밝았다 고들 말하는데”라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춘추》에 밝다고 여긴다는 것으로 의아하다는 뉘앙스가 말투에 넘쳐난다. 〈十二諸侯年表·序〉에서도 “상대부 동중서가 《춘추》의 뜻을 미루어 자못 글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자못’이라는 표현은 약간 경시하는 듯한 말투이다. 사마천은 동중서가 춘추를 쓴 것이 뜻에 있어 미진하다고 여겼는데 어찌 동중서의 말에 근거했겠는가? 또 어찌 사마천이 공양을 《춘추》라고 했겠는가? (“漢興至于五世之間, 唯董仲舒名爲明於《春秋》, 其傳公羊氏也.” 是史公僅以公羊爲《春秋》別派, 不以《春秋》卽公羊. 其曰“名爲明於《春秋》”者, 猶言世俗以爲明《春秋》, 疑蓋之詞溢於言表. 〈十二諸侯年表·序〉云: “上大夫董仲舒推《春秋》義, 頗著文焉.” ‘頗’爲稍略之詞, 是史公以仲舒述《春秋》於義未盡, 安得謂史公說本仲舒? 又安得謂史公以公羊爲《春秋》哉?) 劉師培, 《左庵集》卷二〈史記述左傳考自序〉, 《歷代名家評史記》59-60쪽 재인용.

20) 이에 대해서는 羅倬漢의 설명을 참조할만 하다. “사마천이 〈자서〉에서 동생에게 들었다고 특별히 언급한 것은 대개 동생이 공양학을 하여 당시 학관에 세워지고 세력이 그곳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난신 적자를 주벌하려는 대의를 높이고자 한 것일 따름이지, 공양학의 아래 기치를 세운 것은 아니다. (史遷〈自序〉特言聞之董生者, 蓋以董生爲公羊氏之學, 當日立於學官, 權勢所歸, 據之以明誅亂賊之大義之尊嚴耳, 非樹幟於公羊之下.) 羅倬漢, 《史記十二諸侯年表考證》卷四, 《歷代名家評史記》65쪽 재인용.

21) 《孟子·離婁下》(中華書局, 1995), 192쪽.

마디 거들 수가 없었다.(孔子在位聽訟, 文辭有可與人共者, 弗獨有也. 至於爲春秋, 筆則筆, 削則削, 子夏之徒不能贊一辭.)

결코 독단을 행하지 않았던 공자가 《춘추》에 있어서만은 오로지 자신만의 판단에 근거하였다. 이쯤되면 사마천이 왜 그토록 《춘추》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극찬하며 《사기》가 《춘추》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지 알 수 있다. 공자가 오로지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시비포편을 행했듯이 자신 또한 역사 인물에 대해 자신만의 평가를 내리고자 한 것이며 그 근거를 《춘추》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개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과 평가가 많은 논쟁과 비난을 불러 일으켰음은 물론이다.<sup>22)</sup>

사마천은 오로지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에 의한 판단으로 일가를 이루고자 했다. 사마천은 《사기》를 지은 의도에 대해 “저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두루 살펴 나만의 견해를 이루고자(欲以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 했다고 말한다.<sup>23)</sup> 이 ‘一家之言’이라는 것은 제자백가서처럼, 순경이 《순자》를 짓고 동중서가 《춘추변로》를 지은 것처럼, 자신의 일견식을 말하기 위해 《사기》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를 역사서로만 읽는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이면에 내재된 사마천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sup>24)</sup> 따라서 그에게는 성패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의 신념, 도의, 용기, 희생이었다. 역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역사를 대면한 인간의 이야기. 이들을 통해 결국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한 것이다.

22) 이 논란은 물론 비판의 근거와 기준 때문이다. 《춘추》의 시비포편은 도리와 명분에 의한 것이었으며 공자의 의도였기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지만, 《사기》의 인물 평가는 유가적 이념에 익숙해진 후세 사람들에게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平準書》, 《封禪書》, 《儒林列傳》, 《酷吏列傳》, 《匈奴列傳》, 《大宛列傳》, 《佞幸列傳》 등 여러 편에서 드러나는 한 왕조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통박과 비난, 자객과 유협,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을 미화했다는 점 때문에 《사기》는 역대로 무수한 비난과 논쟁에 시달렸다.

23) 《報任安書》, ‘成一家之言’이라는 표현은 《太史公自序》의 말미에서도 보인다.

24) 梁啓超, 《要籍解題及其讀法·史記》: 사마천이 책을 쓴 최대의 목적은 바로 ‘一家之言’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荀況이 《荀子》를 짓고, 董仲舒가 《春秋繁露》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일가지언’을 역사의 형식을 빌려 표현했을 뿐이니 현대의 역사적인 잣대로 《史記》를 읽는다면 《史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歷代名家評史記》 86-87쪽 재인용.

사마천의 ‘成一家之言’에 대해 章學誠은 이렇게 말한다.

고금의 변화를 두루 살펴 나만의 견해를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남들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 남들이 같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보고, 남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조신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끼지 않아야 하고, 원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체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후에 은미한 사이에 그 마음에서 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所以通古今之變而成一家之言者, 必有詳人之所略, 異人之所同, 重人之所輕, 而忽人之所謹, 繩墨之所不可得而拘, 類例之所不可得而泥, 而後微茫秒忽之際有以獨斷於一心.)<sup>25)</sup>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와 선입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새롭게 역사와 인물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독단’,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탁하는 것이 바로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하고자 했던 것이다.

## 2) 반고의 춘추관-尊王과 大一統을 위한 이념적 근거

《사기》의 〈태사공자서〉에 해당하는 《漢書·敘傳》에는 집안의 내력과 《한서》의 집필 과정,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사마천처럼 《춘추》의 계승에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저술 의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한 왕조는 요임금의 기운을 이어 제국의 위업을 세웠다. 육세에 이르러서야 사신(사마천)이 제왕의 공덕을 거슬러 올라가 기술하여 본기를 지었으나 이를 백왕의 끝에, 진나라, 항우와 같은 반열에 두었다. 태초 년간 이후부터는 기록이 없어 나는 예전의 기록을 찾아 들은 것을 엮어서 《한서》를 지었다. 고조에서 시작하여 효제와 평제, 왕망이 주살되는 것에서 마쳤으니, 12세 230년간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종합하고 오경의 뜻을 관찰하여 역사의 상하를 총괄하여 시대 순으로 기, 표, 지, 전 100편을 지었다.(漢紹堯運, 以建帝業, 至於六世, 史臣乃追述功德, 私作本紀, 編於百王之末, 廁於秦項之列. 太初以後, 闕而不錄, 故探纂前記, 綴輯所聞, 以述漢書, 起于高祖, 終于孝平王莽之誅, 十有二世, 二百三十年, 綜其行事,

25) 章學誠, 《文史通義·答客問上》, 《歷代名家評史記》 76쪽 재인용.

旁貫五經，上下洽通，爲春秋考紀、表、志、傳，凡百篇.)<sup>26)</sup>

반고가 《한서》를 저술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드러나 있다. 첫째는 ‘한 왕실에 대한 높임, 선양(尊漢, 宣漢)’이다. 반고는 《사기》가 유씨의 한 왕조를 “백왕의 끝 자리에 놓고 진나라와 항우의 반열에 함께 두었다”고 비판했다. 《사기》에서는 한 왕조가 춘추와 전국, 진, 초한의 전쟁을 거쳐 성립된 것이었지만, 《한서》에서 한 왕조는 堯의 적통을 이은, 천명을 받은 국가임을 강조한다.<sup>27)</sup> 따라서 한나라가 전 왕조의 뒤에, 유방이 항우의 뒤에 배열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 개국 황제인 한 고조의 본기로 사서를 시작하려면 이전 왕조가 수록되지 않은 단대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한서》는 《사기》의 세가에 편입되어 있던 인물들을 모두 열전으로 강등하면서 세가 자체를 없애버렸다. 세가란, 제후로 봉해진 황족이나 공신의 가문으로 이들의 지위와 특권은 세습된다. 고조는 한 왕조의 개국에 공훈을 세운 사람들에게 작위를 내리고 제후로 임명한다. 그러나 문제와 경제시기 계속해서 제후에 대한 견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세력을 약화시켰고, 무제 대에 봉건은 거의 청산되고 군현, 즉 중앙집권 제도로 전반적인 교체가 마쳐진다.<sup>28)</sup> “무제 太初 년간까지 100년 동안 다섯 제후만 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법에 걸려 죽거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至太初百年之間，見侯五，餘皆坐法隕命亡國.)”<sup>29)</sup> 라는 사마천의 표현에는 당시 한 왕조의 봉건 폐지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깔려있다.<sup>30)</sup> 사마천에게 제후는 천하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었기에 〈세가〉를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반고와 후한 시기의 인식은 달랐다. 〈서진〉에는 반표와 隗囂의 문답이 수록되어 있는데, 반표는 봉건과 제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주나라의 흥망은 한나라와 다르다. 옛날 주나라는 다섯 등급의 작위를 세워 제

26) 班固, 《漢書·敘傳·下》

27) 한 왕조가 堯의 적통을 계승했으며, 천명을 받았다는 유사한 언급은 〈高帝紀〉에도 보인다. 《漢書·高帝紀贊》: 漢承堯運，德祚已盛，斷蛇著符，旗幟上赤，協于火德，自然之應，得天統矣.

28) 요시카와 고지로 저, 이목 역, 《한무제》(천지인, 2008), 202쪽.

29) 《史記·高祖功臣侯者年表·序》

30) 方苞, 《史記注補正》: 刺武帝用一切之法以侵奪群下，而成其南誅北討之功也. 《歷代名家評史記》 398쪽 재인용.

후들이 각자 정치를 하게 했다. 그리하여 근본이 쇠약해지고 지엽이 강대해졌고 결국 주나라 말년에는 제후들의 분쟁이 일어났으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제도를 계승하여 군현을 세워 군주에게는 전체적 위엄이 있게 되었고 신하들은 백 년 동안 유지되는 권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周之廢興與漢異。昔周立爵五等，諸侯從政，本根既微，枝葉強大，故其末流有從橫之事，其勢然也。漢家承秦之制，並立郡縣，主有專已之威，臣無百年之柄。)31)

황실의 절대성과 중앙집권적 체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후도 대를 이어 직위와 권세를 세습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반고가 세가를 삭제한 것은 한 왕조의 절대성과 존엄성을 위한 것이었다.

둘째, '오경의 뜻을 관철[旁貫五經]'하였다 점이다. 이는 五經의 논리로 전한 200년의 역사를 풀어내겠다는 것으로 경학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다. 《사기》가 “육경의 다른 해석들을 모으면서도 백가의 잡설을 나란히 한[厥協六經異傳，整齊百家雜語]”32) 것과 대조적이다. 반고는 이 때문에 《사기》가 ‘後六經’이라고 비난했으며, ‘만약 사마천이 오경의 법어를 기준으로하고 성인의 시비와 같이하였다면 뜻이 완벽에 가까웠을 것(誠令遷依五經之法言，同聖人之是非，意亦庶幾矣)’이라고 했다.33)

이러한 한 왕실에 대한 높임, 선양[尊漢，宣漢]과 경학 중심의 역사 서술은 공양학에 경도되었던 반고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동중서의 천인감응설은 반고가 ‘한 왕실을 선양[宣漢]’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34)

공양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은 大一統, 즉 모든 제후국을 하나로 통일된 체제이다. 대일통적 통치 질서를 운용하는 주체는 군주이기 때문에 공양전에서는 군주에 대한 존중[尊王]을 특별히 강조한다. 천하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주의 권위와 기능의 상실이므로, 천하의 안정과 통일을 위한 근본적 토대를 존왕 의식의 확립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공양전의 이론을 확대 재해석하여 한 왕조의 정통성과 중앙집

31) 班固, 《漢書·敘傳》

32) 司馬遷, 《史記·太史公自序》

33) 范曄, 《後漢書·班彪傳》, 반표와 반고의 《사기》에 대한 비판의 중심은 경전과 유가의 근본 이념을 시비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34) 吳懷祺, 《中國史學思想史》(安徽人民出版社, 1996) 105-109쪽 참조. 반고는 《五行志》 등 곳곳에서 동중서의 학설을 대량 인용하였고, 동중서의 이론을 유학의 正宗으로 간주하였다.

권적 지배 질서를 확립한 것이 서한의 동중서이다. 그는 여기에 天命과 군주와의 연관성을 강조한 천인감응설을 첨가하게 되고 정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군권의 절대화를 구축하게 된다. 공양학은 이처럼 왕조의 정통성과 군권의 강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한대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sup>35)</sup> 더구나 왕망 정권을 멸망시키고 재건된 후한은 국가질서와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이념적 근거가 필요했고 讖緯說이 성행하게 된다. 후한 건립의 과정에서 光武帝(재위 25-57)가 참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明帝(재위 57-75)와 章帝를 거치면서 참위는 계속 발전하여 학문으로서 최전성기를 맞게 되고, 통치 사상적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후한의 경학 중에서도 공양학은 참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참위설이 공양학과 일체화되면서 막강한 이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장제시기 유학자들을 모아 유학 경전 해석에 있어서의 異說을 토론하고 정리하여 편찬한 《白虎通義》는 반고가 정리한 것으로서 음양오행과 참위학을 결합하여 유가경전을 해석한 것이다. 전제 정치의 이념 강화는 동중서에서 시작해서 《백호통의》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반고의 《한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인식 하에서 기술되었다. 사마천과 달리 철저히 ‘존왕’과 ‘대일통’의 입장에 근거한 사서를 써야만 했던 정황을 살펴보자. 반고가 전한의 역사를 편찬하던 중 어떤 자가 명제에게 반고가 ‘사사로이 국사를 개작한다(私改作國史)’고 고발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반고는 옥에 수감되고 집 안의 책은 압수되었다. 당시 장군의 직위에 있었던 동생 班超가 상소를 올려 해명을 하고, 황제 또한 반고의 초고를 보고서 蘭臺令史에 임명하여 역사를 쓰도록 했다. 공식적으로 한의 역사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며, 반고가 저자로 되어있지만, 실은 황실 주도의 편찬인 셈이다. 황제가 반고에게 《한서》를 쓰도록 허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험을 거쳐야 했다.

이때 어떤 사람이 顯宗(명제)에게 글을 올려 반고가 사사로이 國史를 바꾼다고

35) 이상 한대 공양학에 대한 설명은 김동민, 《한대 춘추공양학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 참조.

36) 《二十五史導讀辭典》(華齡出版社, 1991), 78쪽.

고발했다. (明帝는) 郡에 조서를 내려 반고를 체포하여 京兆獄에 가두고 집에 있던 책을 모두 몰수하였다. …… (반고는) 대궐로 달려가 글을 올리고 명제를 만나 반고가 책을 쓰는 뜻을 아뢰었다. 郡縣에서도 반고가 지은 책을 올려왔다. 현종은 매우 기이하다고 생각하고 校書部에 조서를 내려 (반고를) 蘭臺令史에 임명하고 前 睢陽令 陳宗, 長陵令 尹敏, 司隸從事 孟異와 함께 〈世祖本紀〉를 편찬하도록 했다. 郎官으로 승진하여 서적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반고는 또 功臣, 平林, 新市, 公孫述의 일을 기록했고, 列傳과 載記 28편을 지어 천자에게 바쳤다. 황제는 이내 다시 이전에 쓰던 책을 마치도록 했다. (既而有人上書顯, 宗告固私改作國史者, 有詔下郡, 收固繫京兆獄, 盡取其家書. …… 乃馳詣闕上書, 得召見, 具言固所著述意. 而郡亦上其書, 顯宗甚奇之, 召詣校書部, 除蘭臺令史, 與前睢陽令陳宗、長陵令尹敏、司隸從事孟異共成〈世祖本紀〉. 遷爲郎, 典校秘書. 固又撰功臣、平林、新市、公孫述事, 作列傳、載記二十八篇, 奏之. 帝乃復使終成前所著書.)<sup>37)</sup>

반고에게 《한서》를 집필하도록 명령하기까지 명제의 태도가 상당히 심사숙고했음을 알 수 있다. 명제는 반고를 체포했다가 그가 쓴 글을 보고서 난대영사에 임명한다. 그 후 광무제의 본기인 〈세조본기〉를 집필하여 다시 한 번 사상적 검열을 받고, 또 다시 列傳과 載記 28편을 지어 바쳐 세 번째의 시험을 거친 후 《한서》 집필을 허락했다. 황제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반고의 반정부적 성향을 철저히 검토한 것이다. 역사 편찬에 대해 명제가 이토록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기》 같은 사서가 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한의 황제들은 《사기》를 한 왕실의 정통과 존엄을 위해하는 사서라 보았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사기》는 절반이 당대, 즉 한대를 다룬 것으로 한 황실과 정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 무제는 《사기》 중 경제와 자신에 관한 내용을 열람하고는 진노하여 삭제 명령하기도 했고,<sup>38)</sup> 반고가 《한서》를 지을 당시 《사기》는 이미 10편이 누락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사기》는 전한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유일한 사서로 통

37) 范曄, 《後漢書·班彪傳》

38) 陳壽, 《三國志·魏志·王肅傳》: 漢武帝聞其述史記, 取孝景及己本紀覽之, 於是大怒, 削而投之. 於今此兩記有錄無書. 이 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무제가 《사기》의 삭제를 명령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기》가 정권에 위협적이고 불리한 기술로 인해 위정자의 분노를 유발했고 그로 인해 내용의 삭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용되고 있었고, 한 황제와 정치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내용에 명제는 심기가 불편했다. 반고가 사사로이 역사를 편찬한다는 불경죄로 체포된 것과 몇 차례의 시험과 검증을 거친 것은 역사 편찬에 대해 후한 조정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지를 반영한다.

명제와 반고의 문답을 보면 후한 왕조의 《사기》에 대한 관점과 반고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다.

(황제께서) 《秦始皇帝本紀》에 대해 신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마천의 찬어 중 무슨 잘못이 있는가?” 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찬어에서 賈誼의 《過秦論》을 언급하며 만약 자영이 평범한 군주로서의 자질만 있었고 재능과 덕망이 보통 정도 만되는 신하가 보좌를 했더라면 진나라의 사직은 쉽게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신을 불러 들어 물으셨습니다. “본래 이 이야기기를 듣고서 그르다고 여겼느냐?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서 깨달은 것이냐?” 신은 평상시의 견문을 답한 것입니다. 조서를 내려 말씀하셨습니다. “사마천은 일가의 말을 저술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겼으나 자신이 극형을 당한 것 때문에 도리어 은미한 문사로 비난하고 원망하며 당세를 폄하하였으니 옳은 선비가 아니다.” …… (제가) 대한 제국을 빛내고 드날려 한나라의 명성이 전대를 뛰어넘게 할 수 있다면 시골구석으로 몰려나 죽게 되더라도 불후의 명성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秦始皇帝本紀》問臣等曰：“太史遷下贊語中，寧有非邪？”臣對：“此贊賈誼《過秦篇》云，向使子嬰有庸主之才，僅得中佐，秦之社稷未易絕也。此言非是。”即召臣入，問：“本聞此論非邪？將見問意開寤耶？”臣具對素聞知狀。詔因曰：“司馬遷著書成一家言，揚名後世，至以身陷刑之故，反微文刺譏，貶損當世，非誼士也。” …… 光揚大漢，軼聲前代，然後退入溝壑，死而不朽。）<sup>39)</sup>

명제가 반고에게 《사기·진시황본기》의 찬어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사마천의 식견이 옳지 않았다고 반고가 대답하자 본래 그런 생각이었는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묻는 명제의 질문에서 신하의 머릿속을 바닥까지 뚫어보려는 치밀함이 보인다. 그리고 명제는 사마천을 자신의 당한 극형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은미한 문사로 비난하고 원망하며 당세를 폄하하였으니 옳은 선비가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황제의 단언은 반고에게는 절대적인 지침이

39) 蕭統, 《文選·典引》(上海古籍出版社, 1997)

있을 것이다. 반고는 《한서》를 통해 한 왕조의 “명성이 전대를 뛰어넘도록” 해야 했다. 이러한 사상적 편향으로 완성된 《한서》는 신속하고 널리 유통되었다. 이러한 유통의 배후에는 조정의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왕실의 권위와 군권의 절대성에 대해 불리하고 비판적인 《사기》를 대신할 사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sup>40)</sup> 심지어 章帝는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삭제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sup>41)</sup>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후한 왕실과 군주들의 《사기》에 대한 인식과 불만을 잘 반영하는 부분이다.

大一統을 위해 전체 국가 질서에 위배되는 개인의 호기, 의리, 사절은 배척해야 할 것이었다. 사마천은 협객을 “말에 신용이 있고 행동은 과감하며 승낙한 일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한다”며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호걸이라 했다.<sup>42)</sup> 그러나 반고는 이들을 “도덕에 부합하지 못하고 말류에서 방종하다가 패가망신(不入於道德, 苟放縱於末流, 身殺亡宗)”에 이르게 된 자들이라 평가한다. 사마천이 훌륭한 명성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멸족당한 협객 郭解에 대해 애석함을 표했던 것과 달리 “보잘 것 없는 필부가 생살의 권한을 훔쳤으니 그 죄는 이미 죽음을 면할 수 없다(以匹夫之細, 竊生殺之權, 其罪已不容於誅矣)”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지조와 절개에 대한 입장도 사마천과 다르다.<sup>43)</sup> 권세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언하다가 죽음을 당했던 王章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다가 죽음을 당하고 처자식은 뿔뿔이 흩어졌으니 슬프구나!(不量輕重, 以陷刑戮, 妻子流遷, 哀哉!)”고 평가했다. 한 왕조의 회복하기 위해 기병하여 왕망정권에 대항했던 翟義를 “의를 헤아리지 못하고 집안을 망하게 했다(義不量力, 懷忠憤發, 以隕其宗, 悲夫!)”고 비난했다.<sup>44)</sup> 만약 사마천

40) 呂世浩, 《從《史記》到《漢書》-轉折過程與歷史意義》(臺大出版中心, 2009), 235쪽.

41) 《後漢書·楊李翟應霍爰徐列傳》에 근거하면 楊終은 “조서를 받아 《태사공》서 10여 만어를 삭제했다(受詔刪《太史公》書爲十餘萬言)”고 한다. 《사기》의 전체 분량이 52만자 정도이니, 10여 만 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삭제이다.

42) 《사기·유협열전》: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었고 행동은 과감하였으며 이미 승낙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하였다. 또한 자신의 몸을 버리고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때에는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삼았다. 이 밖에도 찬미할 점이 많을 것이다.(今游俠, 其行雖不軌於正義, 然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 赴士之阨困. 既已存亡死生矣, 而不矜其能, 羞伐其德, 蓋亦有足多者焉.)

43) 《漢書·游俠傳》.

44) 《漢書》王章, 翟義傳 평어 참조.

이 이들을 위한 열전을 지었다면 어땠을까? 이 때문에 범엽은 반고가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사람을 배격했으며 정직을 부정하고 살신성인의 미덕을 기록하지 않았고, 인의를 가볍게 여기고 수절을 친하게 여겼다고 비판했다.<sup>45)</sup>

《춘추》 공양학의 정치 이념화와 왕실의 개입과 제재 하에서 《한서》는 철저한 존왕과 대일통의 입장에서 기술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사기》가 전한의 현실과 무제의 정치에 대해 통박과 비판을 가했던 것에 반해 《한서》는 “나라의 큰 대사를 논할 때 군주의 결점을 덮어줄(論國體, 則飾主闕)<sup>46)</sup>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IV. 班·馬의 《춘추》관과 문학성의 상관관계

사마천과 반고는 《춘추》를 계승한 의도와 입장이 달랐다. 사마천에게 있어 《춘추》는 공자의 《춘추》였다. 주관적인 시비포폄의 근거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상이었다. 그에게는 사실의 기록보다는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빌려 이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한 인물의 인생과 정신을 온전히 재연해 내고서야 사마천이 말하고자 하는 이상과 가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서사’에 공을 들여야 했다. 바로 “사건을 서술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sup>47)</sup> 실감나고 편집한 ‘서사’의 과정에서 문학성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太史公自序〉에서 “추상적인 말로 기재하는 것보다 사실에 대해 포폄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하고 명백하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사기》의 서술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과 방향을 밝힌 것이다. 즉 원칙적 도덕론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기록하고 그를 통해 포폄을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춘추》의 삼전 중 스토리의 전개와 세세한 곡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좌전》이다.

45) 《後漢書·班固傳》然其論議常排死節, 否正直, 而不敘殺身成仁之爲美, 則輕仁義, 賤守節愈矣.

46) 劉知幾 著, 浦起龍 釋, 《史通通釋·書事》(藝文印書館, 1978) 211쪽.

47) 顧炎武, 《日知錄》卷二六: 옛날 역사를 지은 사람들 중에 논단을 하지 않고 일을 서술하는 가운데 바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자는 오직 태사공이 이에 능하다. 古人作史, 有不待論斷而敘事之中即見其指者, 惟太史公能之. 《歷代名家評史記》 205쪽 재인용.

실제로 《사기》 중 춘추시대는 거의 《좌전》의 기술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좌전》의 풍부한 문학성이 그대로 《사기》로 전수되었다. 〈태사공자서〉에 동중서의 말을 인용했다는 점 때문에 사마천을 공양학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논거를 근거로 할 때 사마천은 《좌전》을 《춘추》의 정통으로 보았다는 쪽이 더 설득력 있다.<sup>48)</sup> 《좌전》이나 《사기》나 선진시대의 ‘史’에 대한 관념, 즉 ‘꾸밈이 질박함을 이기는(文勝質)’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더구나 사마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물의 인격과 행위에 대한 찬양, 혹은 비난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상적 인간상을 보여주어 교훈을 전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패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간적 면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에 대한 문학적 허구와 가공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사마천의 문학적 필력으로 창조된 인물들은 《사기》 속에서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갖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그들의 신념과 의리, 지혜와 용기는 그들 자신의 캐릭터로 인정된다. 장량과 한신이 한 고조의 모신이었지만, 《사기》 속에서 그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각자의 캐릭터를 갖는다.

그러나 반고에게 있어 《춘추》는 ‘존왕’과 ‘대일통’을 중심으로 하는 공양학의 춘추였다. 따라서 《한서》의 구성과 내용 자체는 마치 잘 정련된 피라미드처럼 ‘大一統’을 재현하는 것이어야 했다. 한 왕조는 천명을 받아 건국되었고, 왕실이 지향하는 이념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인물은 군주를 보좌하고 황실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인물들은 각자의 개성과 의미를 갖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왕조와 군주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조연들이다. 반고는 개인의 삶보다는 전체적 질서와 유가적 도의를 구현하는 것이 절실했다. 포커스는 황실과 군주 중심의 통일된 국가, 그리고 그 국가주의를 뒷받침해 주는 이념적 뿌리, ‘대일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서》는 황실과 조정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모든 인물들은 한 왕조의 정통성과 대일통에 일정 역할을 한 자들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적 인물, 제왕을 보필한 고위 관료, 태수와 현령 등의 지방 관리, 지조를 지킨 인물,

48) 劉師培는 “태사공이 《사기》를 지은 것은 《춘추》 고경과 《좌전》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史記·十二諸侯年表序》에서 “노나라의 군자 좌구명은 제자들이 각각 오류를 범하며 제각기 주관에 집착하여 그 진의를 잃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그는 공자의 역사 기록에 연유하여 그 구절을 상세하게 논술하여 좌씨춘추를 지었다”는 부분을 인용하며 “이는 태사공이 《좌전》을 《춘추》의 정통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반고 또한 사마천이 《좌씨춘추》를 계승했다고 언급했다. 《歷代名家評史記》 59쪽 참조.

유학자들이다.<sup>49)</sup> 기술의 포커스 또한 인물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적에 치중 된다. 물론 《한서》에도 대화와 심리묘사를 통해 실감나는 장면 묘사를 보여주는 문학적 표현이 없지 않다. 〈蘇武傳〉은 《한서》 중 명편으로 손꼽힌다. 소무는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었으나 절개를 굽히지 않고 19년간 고생하다가 결국 한나라로 귀환하게 된 인물이다. 특히 그에게 항복을 권유하려 온 李陵과의 직접 화법으로 진행되는 대화에서는 소무의 비장한 각오가 잘 부각된다. 그러나 이 또한 한 왕조에 절대적 복종과 충심을 가진 인물에 대한 미화의 과정에서 발휘된 일면일 뿐, 《한서》 대부분의 열전은 《사기》에 비해 직접 화법이 훨씬 적다. 《사기》는 실감나는 장면 묘사를 위해 직접 화법을 구사함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과 심리적 갈등까지 모두 기록한다. 물론 사실을 근거로 한 저자의 상상과 가공이지만 이 과정에서 인물과 상황은 눈앞에서 보듯 뾰족하게 재현된다. 그러나 《한서》는 주로 개괄식 서술을 위주로 하면서 자료의 원문, 즉 상소, 책문과 조의를 수록하는 것에 많은 편폭을 할애한다. 〈董仲舒傳〉의 경우는 한 편 전체가 천자의 책문과 동중서의 답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사기》가 인물 묘사에 주력했다면, 《한서》는 사실의 기록에 주력한 것이다. '사실은 있으나 사람은 없다'는 《한서》에 대한 평가는 문학성의 성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sup>50)</sup>

## V. 나오면서

사마천과 반고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에서 《춘추》를 계승하였다. 사마천은 공자가 자신의 학술과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춘추》를 편찬했다고 이해했으며, 공자가 천자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포폄을 행한 것처럼 자신도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에 대해 자유롭게, 독단적으로 시비포폄을 행하기 위한 근거로 《춘추》를 끌어온 것이다. 사실의 직서보다는 자신의 입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문학적 기교와 상상을 운용한 것이다. 반면, 반고에게 《춘추》는 한 왕조의 정통성과 절대적 군권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념이었다. 尊王과 大一統에 근거한 사서를 편찬하여 한 왕조의 위업을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한서》의 목적이었던 것

49) 이러한 인물 분류는 안대회, 《한서열전》(까치, 1997)의 〈한서해설〉 부분을 참조하였다.

50) 錢穆 저, 이윤화 역, 《사학명저강의》(신서원, 2006) 195쪽.

이다.

다시 말해 《사기》가 공자의 《춘추》를 계승했다면 《한서》는 공양가의 《춘추》를 계승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무제 시기 동중서의 건의로 '독존유술'과 공양학이 채택 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초반기였기에 절대적이지 않았으며 정치와 학술 전반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사마천은 공자의 의도와 원의가 정치 이념화 되지 않은 《춘추》를 계승했다. 그러나 왕망의 정권을 멸망시키고 한 왕조를 재건한 후한의 광무제, 명제, 장제 50여 년의 시기 동안에는 이질적 사상이나 위협적 세력 없이 사상, 학술, 정치 모든 면에서 왕조의 온전한 '대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관건이었다. 후한 정권은 공양학의 근본 이념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춘추학은 절대적이고 막강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반고는 이러한 정치 이념화된 공양학의 《춘추》를 계승한 것이다. 마치 조선의 《논어》가 주자의 《논어》였지, 더 이상 공자의 《논어》가 아니었던 것처럼.

반고는 이처럼 《사기》와 《한서》가 서로 상이한 춘추관을 전제로 출발하였고, 이것이 사서의 내용과 문학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고찰하였다. 《사기》가 남다르고 비범한 인물을 선별하여 그들 개인의 인격과 행동에 주목하였다면 《한서》는 한 왕조의 대일통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조한 인물을 위주로 하였다. 《사기》는 인물 개인을 부각시켜야 했고, 《한서》는 왕조와 정치가 중심이었다. 문학적 상상과 허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배제하느냐는 이러한 중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차후의 논문에서 漢代 이후 사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춘추》 계승 의식과 문학성의 상관관계를 더욱 전면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97.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97.  
 范曄, 《後漢書》, 中華書局, 1997.  
 楊伯峻 譯註, 《孟子譯注》, 中華書局, 1995.  
 章學誠, 《文史通義校注》, 中華書局, 1985.  
 趙翼, 《陔餘叢考》, 河北人民出版社, 2003.

- 梁玉繩, 《史記志疑》, 中華書局, 2006.
- 錢鍾書, 《管錐篇》, 中華書局, 1994.
- 呂世浩, 《從《史記》到《漢書》-轉折過程與歷史意義》, 臺大出版中心, 2009.
- 潘定武, 《漢書文學論稿》, 安徽大學出版社, 2008.
- 楊燕起, 陳可青, 賴長揚 編, 《歷代名家評史記》,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6.
- 韓兆琦, 《史記通論》,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 吳懷祺, 《中國史學思想史》, 安徽人民出版社, 1996.
- 韓兆琦 著, 이인호 譯, 《사기교양강의》, 돌베개, 2009.
- 김동민, 《漢代 春秋公羊學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박성진, 〈先秦人의 春秋觀〉, 중국문학연구 27집, 2003.
- 錢穆 著, 이윤화 譯, 《사학명저강의》, 신서원, 2006.
- 민두기, 《중국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85.

### 【中文提要】

編纂史書上最重要的條件是事實，但若史書只有客觀事實的羅列，可以傳達知識和信息，不能給讀者感動，讓讀者感動由於史書的文學性。爲了逼真的場面描寫，史官運用生動的獨白，對話，仔細描寫人物的心理，這些描寫仔細得好像自己親眼目睹一樣，甚至創作完全架空的人物與故事。《史記》是事實與文學絕妙調和的代表作。但《史記》以後所出現的史書中，文學性逐漸減少了。本稿從史書的《春秋》繼承意識起探討了《史記》與《漢書》的文學性傾向。《史記》所繼承的《春秋》，像孔子編纂《春秋》一樣，是自由的，獨斷的是非褒貶的根據。《漢書》與此不同，對班固來說，《春秋》是以‘尊王’與‘大一統’爲中心的公羊學《春秋》，也是不可違背的，確固的統治理念。兩人不同的《春秋》觀影響到了其文學性。司馬遷憑借記錄不凡歷史人物的人生來展開自己的理想，所以描寫的重點是個人本身，爲了更加逼真的歷史場面，司馬遷自然運用了多樣的文學手段。但《漢書》的重點不是個人的人品與行動，而是宣揚整體王朝的秩序、權威。史家積極活用文學的想像與虛構的與否，是由於如此的重點。

**【主題語】**

司馬遷, 班固, 史記, 漢書, 春秋觀, 文學性

투고일: 2011. 4. 21 / 심사일: 2011. 4. 25~5. 6 / 게재확정일: 2011. 5. 13